

## I. 시작하는 말

예배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큰 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저변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으로만 예배가 예배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인 것을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착하고 좋은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복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II. 중심 말씀

### 1. 행위에 담긴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동물이 죽고 철저히 뼈가 발리고 그리고 그 동물이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담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는 일이 양 한마디가 죽고 태워질 때마다 또 다시 내 자녀 하나가 살아나는구나! 그렇기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처절함과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의미가 바로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

### 2.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냐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24절에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보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자와 구경꾼은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완수하고 성막에서 나오는 제사자의 옷이 어떻게 될까요? 온통 제물의 피범벅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럼 예배자는 예배자의 피가 묻습니다. 누구의 피가 묻을까요? 예수의 피가 묻고, 생각에 예수의 피가 묻고, 행동에 예수의 피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가 안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옆에서 구경했기에 옷이 깨끗합니다. 온 그대로 가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자는 예배자는 제물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말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눔 질문)

### 3. 예배는 두가지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드릴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배에서는 살아있는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들이 드릴 예배는 예배당의 문을 나가서부터 시작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시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질문)

## III. 정리하는 말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못된 사람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예수의 공로로 다시 씻음을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렇게 착한 말을, 착한 눈빛을,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몸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 임재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 1)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놓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 2)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 3)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 4)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200)

- (1)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 (2)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 (3)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후렴) 아름답고 귀한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406)

- 1)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 4)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